

제1강 성계급과 성정치: 솔라미스 파이어스톤과 케이트 밀렛

★ 페미니즘의 간략 역사

| 구분 | 시기 | 내용 |
|----------------|--------------|---|
| 제1의 물결 페미니즘 | 19세기와 20세기 초 | - 복장 개혁 - 교육받을 기회 - 정치적 평등 - 참정권 |
| 제2의 물결 페미니즘 | 1960-1970년대 | - 동일 임금 - 성적 자유와 재생산 관련 자유 - 여성의 가정 내 부불노동 인정 - 여성에 대한 전형화된 미디어 재현 반대 - 성폭력, 가정폭력 |
| 제2의 물결 페미니즘 이후 | 1970년대 이후 | - 교차성 이론 - 성소수자 담론, 퀴어이론 - 반포르노그래피 운동 - sex positive feminism |

출처: 『트랜스젠더의 역사』

★ 주요 용어 정리

| 용어 | 의미 | |
|----------------|---|---|
| 섹스Sex | - 여자female, 남자male - 난자생산자, 정자생산자 - 난자 혹은 정자를 생산하는 생식력에 따른 구분 - 성관계 - 성행위 | - 서구 페미니즘과 성이론은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를 구분하여 분석 - 한국과 중국은 성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가 통합되어 있음 |
| 젠더Gender | - 성별: 문화적으로 구분된 여성 woman과 남성man - (연약한) 여성, (강인한) 남성 - 주부(여성), 가장(남성) | - 생물학적인 차이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구분 역시 문화에 따른 결정. 이에 주디스 버틀러는 섹스 역시 젠더라는 주장을 하기도 |
| 섹슈얼리티Sexuality | - 성애, 성적 욕망 - 생식기와 신체를 사용해 성행위를 즐기는 방식 | |

출처: 『트랜스젠더의 역사』 / 『성이론』

Part. 1 솔라미스 파이어스톤의 『성의 변증법』

1.1. 솔라미스 파이어스톤(1945-2012)

- 1945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남
- 미국으로 건너가 1967년 시카고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60년대 민권운동과 반전운동 경험 과정에서 운동권 단체 내부 성차별 경험
- 진보 남성들 주도의 사회변혁이 여성 해방과 관련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
- 이 경험이 『성의 변증법』(1970)을 쓰게 된 직접적인 배경
- '뉴욕급진여성New York Radical Women'과 '레드스타킹The Redstocking', '뉴욕급진페미니스트New York Radical Feminist' 등 세 개의 페미니스트 단체를 조직
- 스물 다섯에 『성의 변증법』을 쓰고 일약 스타이론가로 급부상
- 그러나 『성의 변증법』 이후 활동이나 저작물을 내지 못하고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짐
- 오랫동안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2012년 8월 뉴욕의 아파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됨

1.2. 『성의 변증법』의 위상과 요지

- 1970년 출간된 케이트 밀렛의 『성 정치학』과 함께 급진적 페미니즘의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이
론서
- 여성억압의 근본 원인을 찾고,
- 이전의 여성해방운동이 실패했던 이유와 남성 주도의 사회혁명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이 여성
억압을 증식시키지 못하고 있었음을 짚고,
- 성해방을 위한 성혁명의 구체적인 서사를 작성

1.3. 책의 목차

| 구성 | 내용 |
|-------------|---|
| 1장 성의 변증법 | 성적 계급의 개념화를 시도 성과 유물론의 상관관계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권력의 성적 불균형 발생 성적 계급 철폐 방법(생식조절에 대한 점유, 성 구분 자체 철폐) 생물학적 가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문화적 제도 |
| 2장 미국의 페미니즘 | 역사적인 제1물결 페미니즘 운동이 실패한 이유 3세대에 걸쳐 여성의 투표권 쟁취를 위해 투쟁했으나 투표권 획득이라 는 사소한 목적만 달성 남성 주도의 정쟁 구도를 타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정치적 주체 성 획득하는 데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남성들의 정당의 하녀로 전락 이후 소강상태에 빠졌던 페미니즘이 60년대 부활하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정치운동 참여가 활발해졌으나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운동권 내의 성차별 분위기 지속 남성 지배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남성과 동일시하거나 남성성을 체화한 여성들도 있고, 여성들이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

| | |
|------------------------|--|
| | 남성과 여성을 지배-복종의 관계로 보는 심리를 뿌리까지 추적해야 함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혁명을 통한 성계급 타파를 외치는 급진페미니즘일 것임 |
| 3장 프로이트주의: 오도된 페미니즘 | 프로이트주의와 페미니즘은 같은 역사적 조건에서 발생했다(가족) 프로이트주의와 페미니즘은 같은 현실에 기반한다(가족) 가족 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 위계와 권력을 탈취하고자 하는 욕망과 좌절의 과정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프로이트와 페미니즘 모두가 과정에 성이 결부되어 있음을 밝혔음) 그러나 프로이트주의는 '정상적인' 성역할에 맞게 남성과 여성을 사회화시키는 목적을 위해 수정되었다 |
| 4장 아동기를 없애자 | 아동기가 탄생한 배경을 살피며 아동기의 탄생이 중산계급 가족 구조의 욕구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아동기의 탄생으로 여성이 출산과 양육의 역할에 더욱 결박당하게 되었으며, 아동이 성인(특히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기간을 지체시켜 의존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성인 남성의 권력이 강화되었다고 분석. |
| 5장 인종차별주의: 남성가족의 성차별주의 | 인종차별주의 역시 가족의 권력 위계질서의 관계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분석. 국가를 거대한 가족으로 간주하고, 백인남성, 백인여성, 흑인남성, 흑인여성으로 분류된 각 집단의 여성성과 남성성의 강도를 상대적으로 분석한 후 이에 따라 아버지, 어머니, 아내, 정부, 적자, 사생아, 포주로 구분한다. |
| 6장 사랑 | 6 - 8장을 통해 사랑과 에로티시즘(로맨스 문화), 남성 문화가 어떻게 여성을 남성 의존적 존재로 만드는지 고찰 |
| 7장 로맨스 문화 | |
| 8장 (남성)문화 | |
| 9장 문화사의 변증법 | 고대 이전, 고대, 르네상스, 근대, 현재로 시대를 구분해 문화가 발전해 온 역사를 되짚으며 여성에게 어떤 문화가 할당되었는지 남성에게 할당되었던 문화는 무엇이었는지, 시대가 변하면서 각 문화의 중요도가 변화하면서 여성과 남성에게 할당되었던 문화가 어떻게 재편되어 왔는가를 기술. |
| 10장 궁극의 혁명: 요구와 사변 | 성적 억압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생산수단과 생식수단을 점유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의 탈취가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전망. 소외된 임금 노동을 종식시킴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철폐해 권력의 중심을 와해, 생식과 출산을 과학기술에 전가함으로써 생식과 출산의 압제에서 여성을 해방. 이것은 가족과 계급제도를 한꺼번에 파괴할 수 있을 것 |

1.4. 주요내용

1.4.1. 성적 계급

- 성적 계급은 쉽게 해결될 수 있거나 피상적인 불평등으로 취급받지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리가 깊으며 전통적인 사고 범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원적이고 심대한 변화를 요구

-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계급분석은 대단한 작업이지만 경제에서 직접 생겨나지 않는 현실의 단계 (성심리, 성적 하부구조)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므로 역사적 유물론을 확장시켜 성 그 자체에 기초한 역사의 유물론적 관점을 발전시키는 시도를 해야 한다.(17-19)
- 남성과 여성은 다르게 만들어졌고 평등하지 않다. 생물학적 현실은 성적 계급을 발생시켰다. 생물학적 가족(남성-여성-유아로 이루어진 기본적 생식단위)은 성적 계급을 공고히하는 구성물로 생물학적 가족에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힘의 분배가 내재해있다.(21)
- 생물학적 가족은 시대를 통틀어 모든 곳에 존재했다.(23)
- 여성들은 역사를 통틀어 생물학적 요인들(생리, 폐경, 출산, 수유, 양육) 등으로 육체적 생존을 위해 남성에게 지속해서 휘둘러왔다.(21)
- 유아는 성장을 위해 성인에게 의존하는데, 유아의 의존은 어머니-아이의 상호 의존관계가 보편적이다.(21)

1.4.2. 생식조절에 대한 점유를 통한 생물학적 출산으로부터 해방

- 임신은 야만적이다 ... 임신은 종을 위하여 개인의 육체가 임시로 기형이 되는 것이다. ... 더욱이 출산은 고통이 따른다.(287)
- 생식기술이 비자연적이라고 여겨진 것은 '시험관' 아기 자체가 아니라(불임인 여성들이 스스로 이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데 주저없이 동의했으므로), 남성 우월성과 가족의 제거에 기초한 새로운 가치체계가 출현할 가능성을 비자연적으로 여긴 것이다.(286)
- 여성들에게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되돌려주는 것뿐 아니라, 인간 생식능력 조절에 대한 일시적 점유,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 관한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구 생물학도 요구된다. 또한 사회주의 혁명의 최종 목적이 경제적 계급 특권의 철폐뿐만 아니라 경제적 계급 구분 그 자체를 철폐하는 것이듯이, 페미니스트 혁명의 최종 목적은 최초의 페미니스트 운동의 목표와 달리 남성 특권의 철폐뿐만 아니라 성 구분 그 자체를 철폐하는 것이어야 한다. 인간 존재 사이에 생식기의 차이는 더 이상 문화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25)
- 양성 모두를 위한 단성에 의한 종족의 생식은 (적어도 선택의 여지가 있는) 인공생식으로 대체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아이들은 양쪽 성에서 동등하게, 혹은 두 상 중에서 어느 성에라도 상관없이 태어난다. 아이가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것(거꾸로의 경우에도)은 대개 다른 소집단 사람들에게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의존하는 것으로 대체될 것이고, 육체적인 힘에 있어 어른들보다 열등한 것은 문화적으로 보상될 것이다.(25)

1.4.3. 아동기 타파

- 여성 억압의 핵심은 자녀 출산과 자녀 양육의 역할이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이 이 역할과의 관계에서 정의되고, 그 관계에 의해 심리학적으로 형성된다.(109)
- 중세시대에는 아동기와 같은 것이 없었다. 아이들에 대한 중세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무척 달랐다. '아동중심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어른과 구분되는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다. 중세의 도상학에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면서 어른의 축소판으로 그려졌다. 그때의 아이들은 태어난 계급과 가문이 무엇이든 명확하게 정해진 사회적 지위에 오르도록 운명 지어진 작은 어른이었다.(114-115)
- 아이는 어른과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묘사하는 특별한 용어가 없었다. ... 아이들은 경

제적 의존성에서만 어른들과 사회적으로 구분되었다. ... 모든 아이들은 말 그대로 하인이었다. 그것은 성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제살이었다.(115)

- 아이는 가족생활에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커다란 가부장제 가구의 한 구성원이었을 뿐이었다. 모든 가족에서 아이는 낯선 유모에 의해 키워졌고 그 후에는 도제살이를 하기 위해 다른 가정에 보내졌다.(116)
-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숙소, 학교 또는 활동은 없었다. 이러한 분리가 어른이 될 준비를 지연시킨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가능한 빨리 전체 구성체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아이들만을 위해서 고안된 특별한 장난감, 오락, 옷이나 학급은 없었다.(116-117)
- 14세기 이후, 부르주아지와 경험과학의 발달로 상황이 서서히 변하면서 아동기라는 개념이 현대 가족의 부속물로 발달된다. 아이들과 아동기를 묘사하는 용어들이 만들어졌고, 17세기 말에 이르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장난감이 흔해졌으며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오락도 도입되었다.(117)
- 근대 핵가족의 등장은 그것의 부속물인 '아동기'와 함께 짧은 기간의 의존에 불과했던 것을 확장하고 강화시킴으로써, 또한 일반적인 방식들(특별한 이데올로기, 고유한 생활방식, 언어, 복장, 예법 등)을 발달시킴으로써, 이미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집단에 씌워진 울가미를 즐라했다. 아동의 의존성이 증가하고 과장되는 것과 더불어, 여성의 모성애로의 속박 역시 그 한계로까지 확장되었다. 여성과 아이들은 이제 형편없는 한 배에 탔다. 그들의 억압은 서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자녀 출산의 영광, '자연적' 여성의 창조성의 숭고함의 신화에다 이제는 아동기 자체의 영광과 자녀 양육의 '창조성'에 관한 새로운 신화까지 첨가되었다.(133)
- 아이들에 대한 양육은 기꺼이 여성에게 양도된다.(151)
- 여성들과 아이들이 가지는 특별한 유대의 본질은 억압을 공유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이 억압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서로 복잡한 방식으로 강화하므로 우리는 아동해방을 논의하지 않고는 여성해방에 관해 논의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109)

1.4.4. 사랑과 에로티시즘

- 오늘날 사랑이라는 것은 어쩌면 출산보다도 훨씬 더 여성을 억압하는 주요 축이다.(183)
- 사랑이라는 감정에 여성들이 호소하는 행동은 그들의 객관적인 사회적 상황(남성에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에 의한 필연적인 것이다.(197)
- 그 자체로는 좋은 사랑의 현상이 계급적 맥락 때문에 왜곡된다. ... 여성의 계속되는 경제적 의존은 동등한 사람들 간의 건전한 사랑의 상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201)
- 에로티시즘은 사회적-애정 욕구를 생식기적 섹스로 전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섹슈얼리티의 집중이다. 에로티시즘은 여성의 열등성을 강화하는 낭만주의의 최고 단계에 불과하다(215-216)
- 남성들은 여성의 육체적 속성을 사유화해 여성을 정형화한다. ... 이것이 더 문제적인 것은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을 피상적인 속성들로만 구별되는 '인형'으로만 보게 부추기고, 여성으로 하여금 계급으로서의 성적 착취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그것에 대항하여 단결하지 못하게 막고, 두 계급으로 효과적으로 분리시킨다.(219-220)
- 그래서 여성들은 점점 더 닳아보이게 된다. 동시에 육체적 외형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기대된다. ... 그러나 에로티시즘의 진짜 문제는 정형화된 아름다움을 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아름다운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장과 변화와 쇠퇴를 허용

하는가,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들도 표현하는가, 인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허물어지는가 ... 등의 문제이다.(220-225)

- 에로티시즘 없는 삶이란 단조롭고 지루할 것이다. ... 에로티시즘의 제거를 요구할 때 우리는 성적 기쁨과 흥분의 제거가 아니라 그것을 삶의 전 범위로 재확산시키도록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225)

1.4.5. 성혁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을 생식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양육의 역할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즉 사회 전체로 확산시킬 것
- 여성과 아이들에게 경제적 독립에 기초한 정치적 자율성을 줄 것. 이것은 노동분업의 근원에 대한 도전으로 노동력 자체를 구식의 것으로 만들고 강제 노동, 소외된 임금 노동을 필요없게 만들어(이것은 사이버네틱스(즉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과학기술)가 가능하게 해줄 것) 경제를 급진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로써 여성에 의한 종의 번식과 그것의 결과물인 여성 및 아동의 의존성, 즉 가족이 조직된 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에 도전하고 제거해 권력의 심리를 낡는 가족을 파괴시키고 나아가 가족을 와해시킬 것이다.(296-297)
- 여성과 아이들을 사회에 전면적으로 통합시킬 것. 성별을 분리하거나 아이를 성인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모든 제도들을 파괴해야 한다(학교를 타도하자!). 남성-여성, 성인-아이의 문화적 구분이 파괴된다면 불평등한 계급을 유지시키는 성적 억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처음으로 자연적인 성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297)
- 이는 모든 여성과 아이들에게 성적 자유를 준다. 생식이라는 목적에 국한되어 허용된 섹슈얼리티는 새로운 사회에서 자연적인 다형적 섹슈얼리티로 돌아갈 것이다. 모든 형태의 섹슈얼리티가 허용되고 탐닉될 것이다.(297-298)

Part. 2 케이트 밀렛의 『성 정치학』

2.1. 케이트 밀렛(1943-2017)

- 미국 아일랜드계 가톨릭 가정에서 세 자매의 장녀로 태어남
- 14세 때 알콜중독에 걸린 아버지가 가족을 버림
- 미네소타대학 졸업 후 옥스퍼드대학에서 빅토리아 시대 영문학 전공
- 귀국 후 조각 공부해 영문학을 강의하면서 창작 활동 병행

2.2. 『성 정치학』의 요지

-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이라고 여겨져왔던 성의 영역이 기실 권력 관계로 점철된 정치의 영역임을 역설
- 여성해방의 역사를 집대성
- 여성 억압을 공고히하고 내면화하는 데 일조한 문학작품을 비판적으로 독해

2.3. 책의 목차

| 구성 | | 내용 |
|--------------|--|--|
| 1부 성 정치학 | - 1장 성 정치학의 사례들 - 2장 성 정치학의 이론 | 여성 억압과 차별이 지속되는 이유 성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순한 생물학적 차이를 지칭하는 분류가 아니라 생물학적 차이를 근거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억압적 장치 가부장제의 여러 측면을 개념적으로 정리하여 성이 정치의 영역임을 이론화 |
| 2부 이론적 배경 | - 3장 성 혁명 제1기: 1830년~1930년 - 4장 성 혁명 반동기: 1930~1960 | 성혁명의 시작과 실패 그리고 재출발 (여성해방 운동을 역사적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여성해방의 역사를 집대성) 파이어스톤의 역사 분석과 궤를 같이 하며 참정권에 집중하여 그 실질적인 목표를 이룬 후 급격히 와해된 페미니즘의 역사를 성혁명 제1기로 보며 실질적으로 제1기는 가부장제를 완벽하게 와해하지 못한 실패의 시기로 규정 실패의 원인 역시 파이어스톤과 같이 여성 운동 내부에서 찾고 있음 1930년에서 1960년은 페미니즘이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시기. 밀렛은 이 원인을 페미니즘 내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실질적으로 가정에 유폐시킨 나치당과 소련의 정책 그리고 정신분석을 통해 여성의 열등함을 문화적으로 정당화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찾는다. 프로이트에 대한 비판은 파이어스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

| | | |
|----------------------|---|---|
| <p>3부 문학적 고찰</p> | <p>- 5장 D.H. 로렌스 - 6장 헨리 밀러 - 7장 노먼 메일러 - 8장 장 주네</p> | <p>밀렛에게 로렌스, 밀러, 메일러는 문학작품을 통해 반동의 시기 가부장제와 여성의 성적 억압을 공고히하는 데 기여한 작가들 밀렛은 3부를 통틀어 이들의 작품을 꼼꼼히 비판적으로 독해 장 주네의 소설은 동성애 금기에 저항하고 있지만 이성애 사회를 구성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고한 전형성과 이를 근거로 위계화된 계급질서를 재현. 밀렛은 주네의 소설을 독해함으로써 생물학적 정체성만큼 남성과 여성의 기질적 특성(성역할, 젠더)을 고착화하는 문화 역시 문제라고 비판</p> |
|----------------------|---|---|

2.4. 주요내용

2.4.1. 성은 정치적인 것이다.

- 정치라는 용어는 일군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배받는, 권력으로 구조화된 관계와 배치를 지칭한다.(72)
- 인종, 신분, 계급, 성처럼 분명하게 정의되고 있는 일관된 집단들 사이의 개인적 접촉과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정치학을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특정 집단은 수많은 정치적 구조들 속에서 재현되지 않고, 따라서 그들의 지위는 아주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억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72-72)
- 남성과 여성이라는 관계는 출생에 의해 정의되는 하나의 생득적 집단성이 또 다른 생득적 집단성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계이다. 생득권만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 유사 깊은 보편적 지배 구조가 남아있는데 ... 그것은 '성'의 영역을 지배하는 구조이다.(73)

2.4.2. 성의 지배

- 우리 사회질서 안에서 거의 검토되지 않을 뿐더러 인식되고 있지도 않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바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생득적 우월성이다. 이러한 양성간의 체제를 통하여 가장 교묘한 형태의 "내면의 식민화"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그 어떤 형태의 인종차별보다 강고하고, 그 어떤 형태의 계급 차별보다 완강하며, 더욱 획일적이고 분명 더 영속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 지금 성차별이 아무리 완화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의 지배는 우리 문화에 가장 널리 만연해 있는 이데올로기이며, 가장 근본적인 권력 개념을 제공한다.(74)
- 군사, 산업, 기술, 대학, 과학, 행정 관청, 재정 분야 등등 간단히 말해 경찰의 강압적 권력을 포함하여 사회 내에 권력이 있는 모든 분야가 전적으로 남성의 손에 있다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이는 즉각 명확해진다.(75)
- 여성과 남성 각각에게 성역할을 할당하고 이것을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양성간의 차이는 생물학(자연)에 부합하는 것이라는(허구적) 전제(기실 생물학적 차이는 문화에 의해 자연화되고 강화된다), 여성의 지배를 영속화하는 가족(가족은 구성원에게 사회에 적응하고 순응할 것을 권장하는 동시에, 가장을 통해 국민을 지배하는 가부장제 국가 정부의 단위로 작용, 사회 구성원들의 성역할과 기질, 지위의 범주에 대한 태도를 규정하여 사회화하는 것이 가족의 기능)

이라는 사회적 작인, 계급적 측면, 법체계를 통해 정당화된 여성에 대한 폭력(이슬람 사회에서 성적으로 자율적인 여성에게 내려지는 사형선고, 간통한 여성을 돌로 쳐죽이는 아프가니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간통한 아내를 처형하는 사무라이 문화)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유없는 성폭력, 음핵 절제, 여성매매와 노예화), 여성의 신체적 특성(출산, 월경)등을 터부시하여 여성을 열등한 집단으로 강등하는 인류학과 성경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도록 하여 남성에 대한 여성의 지배, 즉 성의 지배를 정당화한다.(71-132)

2.4.3. 성적 지배를 공고히한 문학 정전들

나는 아이다에게 목욕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아이다는 거절하는 척했지만 매번 그렇게 해주었다. 어느 날 나는 욕조에 앉아 비누칠을 하다가, 그녀가 수건 갖다 놓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다, 수건 좀 갖다 줘요!" 하고 나는 소리쳤다. 아이다는 욕실 안으로 들어와 내게 수건을 건넸다. 아이다는 실크 가운데 실크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 아이다가 수건을 수건걸이에 걸려고 욕조 위에 몸을 구부리자 가운데 살짝 벌어졌다. 나는 무릎으로 미끄러지듯 걸어가 음부에 머리를 파묻었다. 너무 재빠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아이다는 저항할 틈도, 심지어 저항하는 척할 틈도 없었다. 순식간에 나는 스타킹과 가운데 입을 입고 있는 아이다를 욕조 안으로 끌어들었다. 나는 가운데 벗겨 바닥에 던졌다. 스타킹은 그대로 두었다. 그녀는 스타킹 때문에 더 음탕해보였고, 마치 크라나하의 그림에 나오는 여자처럼 보였다. 나는 누워서 아이다를 물어뜯었고, 갈고리에 걸린 지렁이처럼 꿈틀거렸다. 우리가 몸을 말리고 있을 때 그녀는 옆드리더니 내 남근을 깨물기 시작했다. 나는 욕조 가장자리에 앉았고, 아이다는 내 발 밑에 무릎을 꿇고 남근을 게걸스럽게 빨아 댔다. 얼마 지나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워 앞으로 구부리게 했다. 그리고 그것을 뒤로 놓았다. 아이다는 장갑처럼 꼭 끼는 작고 축축한 성기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목덜미와 귓볼, 어깨의 성감대를 깨물었다. 그리고 물러나면서 그녀의 아름다운 하얀 엉덩이에 이빨 자국을 남겨놓았다. 한마디 말도 오가지 않았다.

헨리 밀러, 『섹서스Sexus』

- 밀렛은 소설을 독해하면서 이 서사의 함축적 의미, 서사가 유발할 효과를 조목조목 짚는다.
- 스타킹과 나체는 미적 쾌락을 위해 과시된다. 그 때문에 아이다는 "더 음탕해보였고, 마치 크라나하의 그림에 나오는 여자처럼 보였다." ... "음탕한"이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음란해 보이려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천박한 성행위를 좋아하는 호색한의 구미를 당기는 단어다. 또한 이는 섹슈얼리티가 실로 더러운 것이고, 어느 정도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청교도적인 신념에 근거한다. ... 문제의 크라나하의 그림에 나오는 여성은 창세기를 그린 그림 속에 나오는, 우아하면서도 약간 음울해 보이는 이브인데, 여기에서는 이 이브가 마치 달력에 나오는 여자처럼 격하되어 있다.(36)
- "나는 욕조 가장 자리에 앉았고, 아이다는 내 발 밑에 무릎을 꿇고 남근을 게걸스럽게 빨아 댔다." 이제 권력관계는 명백하게 윤곽이 잡혔다. 주인공은 마지막 오만한 동작으로 자신의 승리를 단언하기만 하면 된다. "얼마 지나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워 앞으로 구부리게 했다. 그리고 그것을 뒤로 놓았다." ... 이 시점에서 독자가 느끼게 되는 것은 거의 초자연적이라 할 수 있는 힘이다. 물론 이때의 독자는 남성일 것이다. 그 단락은 성교의 흥분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상황, 상세한 묘사, 문맥을 생생하고도 풍부한 상상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고분고분하며 우둔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다. 때문에 이는 섹스라는 본질적 층위에서 성 정치학이 작동하는 사례가 된다. 주인공과 독자가 함께 느끼게 되는 만족감은 틀림없이 이러한 남성적 자아의 승리로부터 비롯된다. ... 그리고 나서 주인공은 자신의 대상을 어떻게 사육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독자의 욕망을 채워준다. ...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욱 표준적인 자세

로 양성 간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이다.(37-38)

그러나 그때 마치 누군가 나를 체포하듯 불시에 얽으나 강한, 변비에 걸린 것처럼 딱 막힌 냄새(가난한 유럽 골목길에 뒹구는 돌덩이와 기름때 절은 하수도 돌맹이를 상기시키는)가 참기 힘들 정도로 지독하게 그녀에게서 풍겨 왔다. 그녀는 굶주리고 있었다. 말라빠진 쥐처럼 굶주리고 있었다. 몹시 강렬하고 완고하며, 몹시 은밀하고 코를 찌를 듯한 그 냄새 속에는 나를 도취시키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재미를 잡칠 뻔했다. 그것은 모피와 보석을 선물해야만 부드러워질 냄새였다.

노먼 메일러, 『미국의 꿈An America Dream』

- 메일러의 이 소설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계급 문제나 자연의 문제로 비인격화되어 있다. 루타는 최하층민처럼 행동하고, 로잭의 부인이었던 데보라는 잔인한 귀족 부인처럼 행동한다. 반면 로잭이 나중에 사귀게 되는 애인인 체리는 가난한 루타에게는 불가능했던 미덕이자, 그리고 위험스러울 정도로 반항적이어서 그냥 살려두지 못했던 특권층 여성(데보라) 보다는 뛰어난 미덕인, 소위 '자연의 미덕'을 소유하고 있다. 물론 남성 주인공인 로잭은 그러한 특정 유형을 뛰어넘는 인물이다.(48)

- 메일러의 소설에 나오는 성교는 항상 산을 오르듯 격렬하게 힘을 써야 하는 행위다. 성취를 한 후에도 늘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작업인 것이다. ... 성교는 단지 루타를 대상으로 한 로잭의 위업일 뿐이며, 따라서 오직 로잭에게만 가치가 있을 따름이다. 행위의 대부분이 로잭의 단독 비행이기 때문에 ... (51-52)

◎ 래디컬 페미니즘의 가치와 한계

-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앞선 세대의 페미니즘 운동에 의해 참정권 확보, 사회 진출로 부분적이지만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고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사회를 움직이는 요직은 남성들의 차지이며 여성들에게는 저임금의 중요하지 않은 직업만 할당되고 여성에 대한 성적 낙인과 성적 폭력이 좀처럼 종식되지 않는 사회의 근원적 문제를 찾고자 했다.
- 이전 세대 페미니즘 운동이 실패한 원인을 찾고(사회적 지위 확보에만 매몰되어 성적 억압은 간과했음) 성적 억압에 대한 성적 차이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과 폭력의 뿌리 깊은 근원으로 지목
-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페미니즘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을 축으로 사회와 문화를 분석하고 역사를 재기술(역사적 유물론 수정과 보충, 남성 문학 비판적 독해, 캐롤 페이트만과 같은 학자는 시민사회의 근간이 되었던 계약의 문제를 여성의 관점에서 독해)
- 간결하고 명료한 문제의 근원을 제시, 투쟁의 전선을 명쾌하게 하여 페미니즘 역사에 분기점을 만들었다
- 그러나 '여성'이라는 고정불변한 단일의 억압자를 만들어내고 그 지위에 스스로를 가두어버렸다.
- 더 중요한 것은 억압자의 위치를 탈피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 또한 (남성과의) 섹스가 여성을 멸시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침식하고 여성의 종속을 강화. 유지시키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것이라 규정
- 급진적인 파이어스톤은 어렵풋하지만 대안적인 섹스의 모델을 제시하지만 밀렛은 남성 주도의, 남성의 쾌락과 욕망 충족에만 우선하고 몰두하는 섹스가 여성을 어떻게 섹스의 행위와 과정에

서 소외시키고 타자화하는 가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만 머무른다.

[참고문헌]

수잔 스트라이커(2016). 제이·루인 역. 『트랜스젠더의 역사』. 이매진.

고정갑희(2011). 『성이론』. 도서출판여이연

솔라미스 파이어스톤(2016). 김민예숙·유숙열 역. 『성의 변증법』. 꾸리에북스

케이트 밀렛. 김전유경 역. 『성 정치학』. 이후